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신학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둘로 보지 않고 살면 애고가 없어

15년에서 계속

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공했다는 걸 알면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한 게 없구나, 더불어 같이 했으니까 말입니다.

질문2: 울산지원에서 온 운병국입니다. 오늘 본원 5층에 오면서 갑자기 본원 신도님들께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당을 지어 놓고 지원신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좋은 인연에 대해서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지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생각했던 바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들은 법회 때마다 '사홍서원'을 합니다. 그때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서원을 하면서도 걸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걸 너무 불가능한 서원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제 스스로는 사실이 공부하면서 참 발전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 직업이 교수입니다. 마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또 저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깊고 간절히 마음 내도록

그런데 이제 둘로 보지 않는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저절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 업식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둘 아니게 보고 대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 업식 그대로 화를 내면서 제자들을 대했을 때는 그야말로 그 거는 업을 짓는 것밖에 안되는구나 하는 걸 점점 깨닫게 되고, 둘 아니게 보면서 대할 때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자들에게 조그만 씨앗이라도 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을 구족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바로 제 스스로의 불성을 의심하는 것이 되어서 제 자신에게 너무나 해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인과관계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눈으로 보면 건질 중생이란게 아예 없기에 보살님들은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리라는 서원을 하실 수 있었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홍서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게 되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편 큰스님께서 지으신 '일체제불의 마음'이란 노래를 법회 때마다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진리의 핵심임을 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질문을 올리자면 오늘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요,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인 그 도리를 다시 한번 살해 주시고 이 도리를 가슴으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큰스님께 법을 청합니다.

스님: 지금 학생들한테 화가 날때 화 나는대로 하신다고 그랬죠?

질문2: 그럴 때도 있고 안그럴 때도 있고요.

스님: 예, 그런데 말이지 그 모든 것을 거기에 관해서 화가 날때도 힘이 없이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거기다 관하고 하시면 힘이 없이 하는 거란 애굽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힘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언짢겠지만 힘이 없이, 가르치기 위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관하고 하시면 언짢지도 않을뿐 아니라 나중에는 또 화를 안내고도 그냥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게 둘로 보지 않는다면 사홍서원의 그 문제도 걸릴게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이나 선이나 둘로 보지 말라. 둘로 보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만 쫓는다면 그냥 굴러서 들어간단 얘지요. 손살같이 말이에요. 지체도 없어요. 그냥,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거 보다도 알면서도 질문하고 모르면서도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참 좋은 결과가 됩니다.

질문3: 큰스님 저는 포항지원에서 온 원영입니다. 큰스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법제 보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선원에 계신 모든 스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더불어 되어 주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해에 살게 해", "공을 알게 해"하고 관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공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날 때마다 '나를 세우지 않게 해' 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있지만, 어느 틈에 내가 하고 있다 라든지 내가 하고 간다 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정말 공부 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쉬우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참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먼 하늘, 먼 산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눈을 지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깊고 간절히 마음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큰스님 가르침대로 항상 어렵고 힘들 때를 넘기고 갑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큰스님 가르침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입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포항지원 법당 신축축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사에 큰 일꾼이 되게 하라고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도반들과 더불어 진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그런 점을 한마디 알려 주십시오.

스님: 이게 불사를 하는 것도 말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내 가정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것을 억지로 밋을 내서 억지로 하지 말라 얘기에요. 그러되 진정한 그 뜻으로다가 그렇게 되게 할려고 노력하면 어디선가 나올 수 있단 얘지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 내 주시는 공법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소. 공식으로서 하는 도리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 진정한 믿음과, 믿는 마음 속에서 양금이 없다는 건 그냥 선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 속에서 양금이 없다면 집의 눈에서 이슬이 맺히지 않을거야.

질문3: 큰스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진해 가겠습니다.

질문4(독일신도): 큰스님 앞에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됨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막한 유럽에 독일지원을 개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독일대법회를 열어 주셔서 길을 찾아 해매는 많은 영혼들이 드디어 한마음공부를 알게 되었음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이 대법회를 처음에 준비하는 그 시간에 독일 신도회는 아직 미약한 힘이었습니 다. 두분 스님의 원력 그리고 큰스님 주시신스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광대한 원력덕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산은 마음이었고 한마음 주인공이 있다면 법회는 이끌어질 것 이라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들의 신조였습니다. 6개월동안의 대법회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각자 깊은 신앙 체험들이 모든 신도들의 집지는 영혼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이 대법회에 몇 명이 올 것인지 저희들은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 다.



그림 · 최추현

자기는 쑥 빠지고 자기 주인공 내세우면 일이 옹게 진행되죠

그리고 대법회가 결정이 난 후로 갑자기 여기 저기에서 알 수 없는 초종파적이고 인종을 초월한 많은 도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그리고 신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종교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다면 그런 정열한 체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개신교를 믿었던 어느 장로님이 신문에 이러한 칼럼을 썼습니다.

생사유회 벗어나는 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대법 큰스님이 바로 살아있는 화현불이시다 라고요. 그렇게 길을 찾던 많은 유럽의 영혼들에게 큰스님은 감로의 법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망이 있었다면 큰스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독일 언 어권 전체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큰스님은 유럽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대법 회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어느 스님이셨습니까.

이렇게 모든 신문 방송 그리고 매스컴을 상대로 했을 때 저희들은 몇 기자가 올 것인지 기대를 하지 않고 정말 큰스님을 알아보는 그런 인연이 있다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법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희들의 내내세계에 정확히 영감

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번 법회는 쉽게 열리는 법회가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신도님들과 스님들께서 큰 원력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라는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 다.

처음에 한 돌만 오면 성공하던 방송 신문기자들이 큰스님이 오실 때 좀 많은 언론사에서 단독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타게스차이퐁' 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가장 큰 중앙지에서부터 큰스님을 전원으로 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송 신문기자들이 큰스님께 받았던 내면의 영감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스님께서 3일전에 드디어 독일에 도착을 하였고 저희 지원의 전화통이 불 붙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세계가 이렇게 현실에 나타남을 저희들은 법회 시작 전후로부터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법회날, 하늘에서 물뭍듯이 내리는 많은 유럽인들이 큰스님이 대법회장에 나타나시자마자 저절로 일어나서 합장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기 전부터 이미 법회장은 장엄함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부처님이 현존하시는 성스러움으로 하늘과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법회에 모였던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

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두시간이 넘어가면 유럽인들이 술렁일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시간 넘어가는 법회동안 한 사람의 미동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저 한마음이 되어서 깊은 정열의 법력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스님께서 법회장을 떠나실 때 푸르기만 하던 독일의 여름하늘에 갑자기 순식간에 굵은 비가 법회장 주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분명히 살아계신 부처님이 무엇인가 크신 화현으로 보여주심을 모두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용기를 내어서 더욱 마음공부에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스님을 직접 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일요일 법회마다 큰스님 비디오 법문 통역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독일의 신도들이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마음공부를 만나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더불어 원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님, 저희들한테도 한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안양 본원의 법당에 일생에 한번 큰스님 모시고 법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천리를 마다 하지 않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직접 키워셨던 많은 마음들과 더불어 한자리 하는 날이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 모든 종교도 하나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리까마는 저희 가족은 저희 애가 없으니, 모든 종교도 하나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리까마는 저희 가족은 저희 애가 없으니, 모든 종교도 하나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리까마는 저희 가족은 저희 애가 없으니, 모든 종교도 하나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스님: 이 공부는 제가공부 자기 자리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영원히 세세생생을 생사의 환로도 없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닦는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돼요. 영원히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아바가 되도 또 세세생생을 자유스럽게 살고 참 걸림없이 살 수 있는 집안이 되길 바래요.

질문5: 울산에서는 요즘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수련원이란 곳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은 조그마한 방에 모여서 마음수련을 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큰스님 법문집인 <한마음 요점>도 비치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본 일은 없습니 다마는 어쨌든 그 곳에서는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쉽게 경성을 할 수 있고 또 쉽게 대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서, 그런 말들에 많은 신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스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 저승길이 라는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 꼬부랑 꼬부랑하게 그냥 멀리 가는데 아닙니다. 속 단에 말로 공부할 한 사람은 그냥 한 나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뭐 며칠도 걸리고 몇백일도 걸린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것도 붙잡아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승길을 모든 걸 알아서 경성을 해서 성불을 하고 또 육바라밀의 모든 문제를 둘로 보지 않고 또는 공식을 할 수 있어서 구경토에 이르러서 즉 말하자면 아이타공부를 건너가 나 하는 문제는 살아서 다 이렇게 화현이 돼야 되는 거지 살아서 공부한 거 없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모습을 여기 얹혀 놓고도 수십억개도 모습을 만들어서도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합

니다. 그런데 질잡이가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말로 그렇게 한다면 이런 부득이 할 수 없는 일이 아주 많다는 얘지요. 그리고 모두 자신에게다가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다가 그렇게 그려 놓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한테다 넣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 또 그것이 인제 걸지 못하다는 거요. 이게 다소 얼마씩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해로움이 많을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길을 올바르게 가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지요. 길을 올바르게 가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럴 거 같으면 기복도 하는데 뭐 그까짓 거야 어때 이렇게 하겠지만 그만큼 길이 늦어지는 거요. 그래서 그 쪽으로 공부하려 가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중심을 잡지 못한 분들입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이 그러지 저 나무뿌리처럼 자리를 완벽하게 딱 잡아 놔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무가 흔들리지 않죠. 일년을 사는 저 수수대도 바람이 불면 쓰러질까봐 미리 뿌리를 잘 박아서 튼튼하게 해 놓고선 바람이 불거나 여수같은 비가 쏟아져도 꺾이지 않고 잘 익어서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는데요.

마음은 흔들림이 없게

수련을 잘 하는데 같은 참 잘한다고 할텐데 그 가르치는 분도 주장자가 겨우 요렇게 생각력 말라니까 어떻게 제대로 이끌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3의 못 그려 놓고 한다는게 나는 마음에 안들거든요. 각자가 모두 자기 몸을 화두로 가지고 사는데 뭐가 또 필요하니까. 이 몸이 화두지만 그 화두조차도 공해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몸속 생명체들은 그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물 한잔을 먹어도 먹은 사이가 없다고. 그래서 들어가니 공상하고 돌아간다. 먹는 것만 공식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공식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할수록 그런 걸 해 놓고서 길잡이 노릇을 할 때 이 신도들이 만약에 절반이 잘못된다 또 절반은 그냥 하다가 만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걸 보는 나로서는 진짜로 내가 부모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얘지요. 그런데 각자 주인공이 있으니 가다가 빠질 듯 하면 그래도 울려야 주겠소.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누가 하겠는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데 참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사람은 점점 어가고 이 에너지는 급속도로 이렇게 줄고 있고. 그러나 사람들이 좀 이 줄의 도리를 공부해서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고 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여자 남자를 둘로 보지 말고 여자 남자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깐 여러분이 하고 가시는 일 또는 지니고 계신 일 그런 것이 물질세계로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이럴 때 거기다 정신계를 첨부해서 만들면 이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뒤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시고요.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상관이 없죠. 조그만 거 하나도 이 세상을 다 살리고도 남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 살리고도 남는다고. 그리고 영원히 먹고도 되게 한다는 얘지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만날 이런 공부를 해서 전자는 이렇게 제대로 내려오면서 고통을 했으니 이제 제대로 올라가면서, 절대로 올라가되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되 내려가는 것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영원히 자유스럽게 살자 이런 뜻입니다.

*위 법문은 2000년 4월 16일 정기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복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이나 인터넷 부디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이시자